

## ■ 클릭! 인터넷

### 인터넷 방송국 -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열리고 있다!

박상정 / 기획조사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방송 이용자 수는 약 5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산출 근거는 리얼플레이어와 미디어플레이어 보급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10%에 해당한다. 1995년 10월 한국방송공사가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지상파 3사는 물론 독립 인터넷방송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케이블 업체들도 통신사업자와 손잡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제휴가 불기 시작한 것이다.



#### KBS 크레지오 ([www.kbs.co.kr](http://www.kbs.co.kr), [www.crezio.com](http://www.crezio.com))

KBS는 해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1997년 3월부터 9개 국제언어로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6월에는 영어로 운영되는 주문형뉴스(News On Demand) 시스템을 개발,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국내 뉴스를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KBS는 한국통신과 제휴해서 설립한 인터넷 방송 크레지오(CREZIO)를 서비스하고 있다. KBS와 한국통신은 지난해 9월 1일 상호협력을 규정한 기본합의서와 공동추진단 운영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KBS와 한국통신은 11월 25일 5개의 라이브채널과 한 개의 주문형 채널로 이루어진 인터넷 방송 크레지오([www.crezio.com](http://www.crezio.com))를 시작했다.

크레지오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30%)과 기존에 방송된 프로그램(70%)을 섞어서 서비스하고 있다. KBS는 앞으로 한국통신 무궁화위성 3호를 이용하여 일본, 연변, 동남아 지역에서도 1Mbps급으로 인터넷 방송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 MBC (<http://www.mbc.co.kr>)

국내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가장 먼저 실시한 MBC의 인터넷 방송서비스는 다양한 내용의 방송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96년 2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TV방송의 경우 1996년 10월 1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국내 지상파 방송으로서는 최초로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방송하고 있다.

TV와 관련해서는 '드라마', '쇼·코미디·오락', '시사·교양·다큐'로 프로그램을 분류해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문형비디오(VOD)로 서비스하고 있다. 라디오 채널인 팜넷(Famnet)에서는 AM, FM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주문형오디오(Audio On Demand)로 서비스하고 있다. MBC의 경우, 홈페이지에 '넷톱'을 고정 배치하고 있다. 넷톱은 1999년 1월부터 음악, 영화, 스포츠 등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제작·방송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웹 캐스팅'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MBC는 지난해 6월부터 두루넷과 콘텐츠 판매, 기술력 지원, 인터넷 이벤트 공동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휴를 맺었는데, 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제휴로는 첫 사례였다.



### SBS ([www.sbs.co.kr](http://www.sbs.co.kr))

SBS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사업에 이어 인터넷 방송 및 전자상거래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SBS인터넷을 설립했다. SBS인터넷은 1999년 8월 21일 정식 출범했으며, 1999년 11월부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포털,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뉴스, 교육,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주된 메뉴로 제공하고 있다.

SBS는 TV와 파워FM, 표준FM을 생중계 서비스한다. 또한 TV와 관련해서는 드라마, 교양, 가족오락, 스포츠로 프로그램을 분류해서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VOD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AOD 서비스하고 있다.



### 아이팝콘 ([www.ipopcorn.co.kr](http://www.ipopcorn.co.kr))

아이팝콘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연예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 방송국 DJ와 WJ(웹자키)가 연예계의 생동감 있는 현장을 전달하는 연예전문 인터넷방송국이다.

아이팝콘은 N세대 위한 엔터테인먼트 포털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다. 연예, 음악, 영화, 교육, 스포츠, 게임, 여행 등의 주요 영역에서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팝콘 방송국에서는 <모니카의 짱계마을>, <헤린의 아이러브 락>, <네오의 일본음악>, <두호의 사투리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이 서비스되고 있다.

### 나인포유 ([www.nine4u.com](http://www.nine4u.com))

인터넷 방송 나인포유(Nine4u)는 98년 1월 1일 아홉 개의



채널로 개국하여 전세계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24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음악전문 방송국이다.

NINE는 'New Internet New Entertainment'라는 모토의 약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를 주관하는 아홉 여신을 의미한다. 현재 여러 유명·무명의 DJ들이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채티브이 ([www.chatv.co.kr](http://www.chatv.co.kr))**

대화형 인터넷 방송국 채티브이는 네티즌 참여방송과 정보통신 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물들을 제작해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진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 유망한 인재 발굴, 육성하는 사이버 에이전시도 운영하고 있다.

<@people>은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를 선도하는 젊은 디지털 CEO들과 네티즌이 만나는 공간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성공요인과 숨은 뒷이야기, 기타 궁금증 등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해 준다. 또한 <Free Zone>은 사랑의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 보내주고, 그 외에도 <PC Market>, <무비무비> 등의 코너를 서비스 중이다.

**브이티브이 ([www.vtv.co.kr](http://www.vtv.co.kr))**

'내 친구가 나오는 방송'을 꿈꾸는 곳이다. 실제로 찾아가 보면 친구처럼 부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비디오 방송에서는 인터넷 다큐, 우리들의 뮤직비디오, 토크쇼, 김낙연 PD 작품, 안상현 감독 작품, 인터넷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오디오 방송에서는 정통 흑인 힙합, 랩 등을 배울 수 있는 <블랙 잉글리시>, 자유로운 뮤직토크쇼 <바다 속에서 널 만나고 싶어>를 서비스 중이다. VTV는 방송 외에 웨딩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방송 시스템 판매, 편집실 대여, 인터넷방송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부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엠투비 ([www.m2b.co.kr](http://www.m2b.co.kr))**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 전문채널. M2B는 Mania Music Broadcasting의 약자로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추구하며 실력을 인정받는



국내외 음악인들과 그들의 음악에 빠져 열광하는 매니아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방송국이다.

한국의 언더 음악과 일본의 라이브 클럽 음악이 주류를 이루며 백판리어카, 잡동사니, 아우성, 그라인드믹서, 애니헌터, 오픈차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